

교란칸논 전망소

후쿠에지마 섬 서쪽 끝에 있는 이 전망대에서는 해안선과 동중국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남쪽에는 푸른 바다와 백사장의 다카하마 해수욕장이 있는 만이 있고, 북쪽의 가이즈 항 인근에는 각이 진 검은 현무암질 용암 덩어리가 해안에 흩어져 있습니다.

바다를 굽어보는 대좌 위에는 교란(생선 바구니)을 든 관음보살 석상이 있습니다. 관음상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‘교란칸논’이라고 불리는 이 상은 드문 형태의 석상입니다.

중국과 일본의 미술에서 교란칸논은 당나라 시대의 민화에서 유래했으며, 관음보살은 아름다운 생선 장수로 변해 나타납니다.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녀는 구혼자에게 불경을 암기하도록 권합니다.

이 상은 어부들이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장소로서 건립되었습니다. 실제로 관음보살의 바구니 속 물고기는 커다란 도미로서 일본 문화에서 길조를 상징하며 고토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고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.